

시인의 마을

가을이 오면

우리 마음에는 누구나 하나쯤 시인의 마을이 있다. 뭐라 자랑할 것도 그렇다...



박여범

음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때면 당달아 차오르는 흥에 미소 짓게 된다. 올해 가을에 포함된 향목이 하나 더 늘었다. 가을을 힘겹게 하는 목...

마스크가 없다고 인사를 나눌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입원실에 누워 있는 환자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마스크는 빛난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달리거한다.

모른다. 차를 한 잔 들고 수돗가 주위를 거닐다가 눈에 들어온 감잎이 너무나 예쁘다. 태양이 내뿜는 빛이...

사설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의 복지관 협약 의미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노인 자원봉사지원센터가 최근 전주 시 평화동에 자리 잡고 있는 학산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 협력 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한 웃음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요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 방문이 어려워 대체 봉사료 이 번 활동에 참여하였다.

부안민속박물관의 희귀 민속품

부안민속박물관은 부안군 부안읍 용계길에 자리한 부안저널 부설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박재순 부안저널 사장이 50년 동안 수집한 유물 3,000여 점이 있다.

자녀 창간 22주년을 기념해 오랜만에 공개한다. 풍구와 구두레 등 70여 점의 농업 관련 유물이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바이든 대통령 "미국을 건설한 것은 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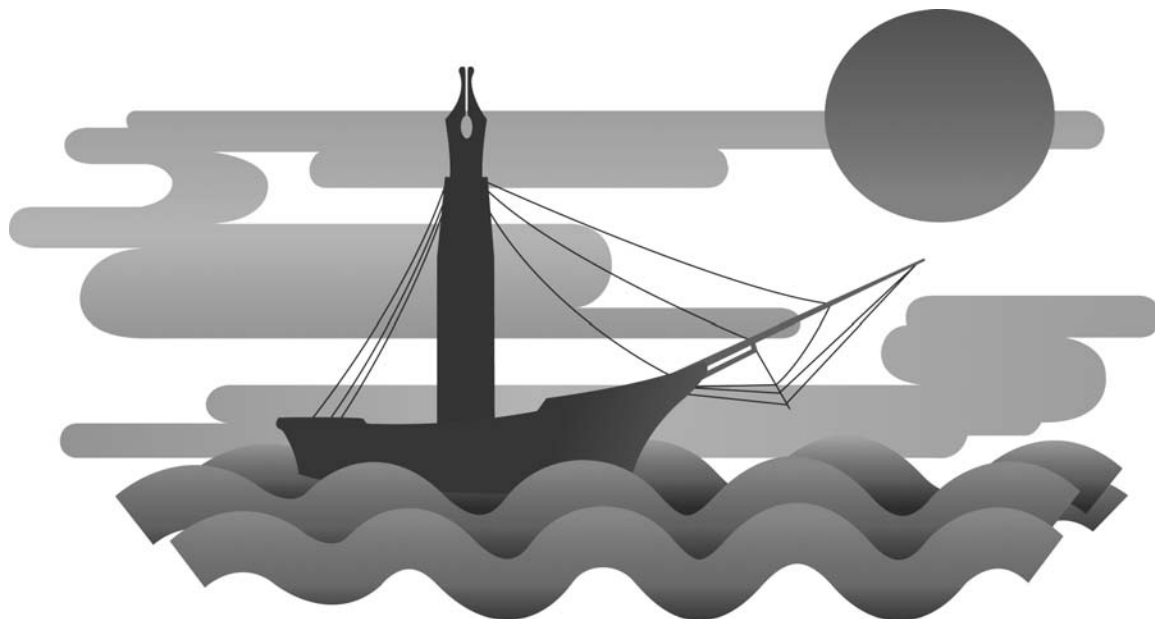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노조 관계 행사를 열고 연설하고 있다.

기니 쿠데타 이후 거리 일상



8일(현지시간) 기니 수도 코나크리 거리에서 한 여성이 음식을 팔고 있다. 기니의 새 군부 지도부는 이전 정부 시절 수감됐던 수십 명의 정치범을 석방했는데 이는 알파 콩데 대통령에게 반대했던 야당의 환심을 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